

광주·전남 市道의회 하반기 의장 누가 뛰나

광주시 강박원 현의장 등 4파전 경쟁 치열
전남도 김재무 첫 도전... 박인환 '와신상담'

광주·전남도의회 하반기 의회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불밀 움직임이 활발하다. 의장 출마가 거론되는 후보들은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 접촉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후보군 윤곽이 거의 드러난 만큼 선거일 직전까지 명분과 실리에 따른 후보간 합종연횡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 의장은 의원들 사이에서 "전례가 없다", "특별한 흡집이 없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 연일 도전을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했다가 1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던 만큼 "이번에는 내가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동료 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강박원 현의장〉 〈나중원 의원〉 〈유재선 의원〉 〈이정남 의원〉



〈김재무 의원〉 〈박인환 의원〉

재선인 김 부의장은 이번이 첫 번째 의장직 출마이긴 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왔으며 동료 의원들과 화합해왔다는 점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번 8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김종철 현 의장에게 2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던 박 의원 역시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며,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며 하반기 의장 출마를 공식화 했다.

/홍행기자 redplane@ /김지을기자 dok2000@

'秋-鄭 단일화·구 민주계 표심' 막판 변수

■민주당 전대 D-6

대안 야당의 새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민주당의 7·6 전당대회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권 주자들은 막판 돌발 변수 관리에 부심하고 있다.

낮은 당 지지율에다 스타급 인물과 이슈의 부재에 더해 최고기 과당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흥행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막판 관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적지 않다.

◇秋-鄭 단일화 성사=정세균 후보의 대선론에 맞선 정대철-추미애 후보간 단일화성공 여부는 경선 구도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지점.

추 후보측은 최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추 후보(30.8%)와 정대철 후보(24.8%)의 지지율 합계가 정세균 후보(44.4%)를 앞선다며 단일화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정세균 후보측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정세균 37.1%, 추미애 20.5%, 정대철 14.5%)를 들어 두 후보가 단일화해도 산술적으로 '정세균 대선론'을 꺾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추 후보와 정대철 후보측은 전대 전 단일화를 목표로 접촉을 강화하고 있으나 서로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노리고 있어, 전대 전 성사는 장담하기 힘들다.



민주당 손학규·박상천 대표, 당권·최고위원 주자들이 29일 서울 어린이대공원내 동아트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대회 및 고시강행 규탄대회'에서 고시강행과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丁 "당선 안정권" 秋 "단일화시 역전 가능" '캐스팅보트' 구 민주계 '전략적 제휴' 관심

◇당심 대 심심=조직기반이 강한 정세균 후보가 대선론을 굳혀 가느냐, 아니면 일반 여론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는 추미애 후보가 바람몰이에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정한 당내 기반과 대중성을 갖춘 정대철 후보도 세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 민주계 '캐스팅보트'='덧발'인 호남에 기반을 둔 구 민주계가 전체 대의원의 30%를 자과 몫으로 확보,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구 민주계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전하지 않

은 채 관망하고 있다. 구 민주계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세균 후보와 국회 부의장 '낙점'을 위해 열린우리당계의 협력이 절실한 구 민주계 출신 박상천 공동대표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양측간 '전략적 제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열린우리당계의 문화상 의원이 부의장직 도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풀출 변수가 발생한 상태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후반기 의장선거 방식 바뀔 듯

"교황식 선출, 밀실 담합 의혹 있다" 여론 따라

광주시의회 후보등록 회의 규칙 개정안 마련

광주·전남도의회가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장·부의장 선출 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 후보에만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을 골자로 한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이달 1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의장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의 의장 선출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48조)과 의회 회의규칙(8조 1항)에 따라 입후보자가 없이 투표권자가 한 장의 투표용지에 자신을 포함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1명에게 기표하는 형태.

이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들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최근 광주시의회의 의장단 선거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개선 여론이 높다. 이들은 공개 선거운동 방식으로의 전환이 해당 후보자가 어떤 정책으로 의회를 이끌어 갈지를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정파·지역을 떠나 중립적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의장의 역할을 감안하면 공개 선거운동 방식이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 만큼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선출 방식이 바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 김동철 의원, 전남 주승용 의원

민주 시·도당 위원장 내일 추대

통합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에 김동철 의원(광산구 갑)과 주승용 의원(여수시 을)이 각각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의 위원장 선거가 경선없이 추대 형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29일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 의원이 광주시

당 위원장 후보로 등록한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주 의원이 전남도당 위원장 후보로 등록, 양 지역 모두 단독 출마가 확정됐다. 그동안 광주시당 위원장 출마의사를 밝혔던 최경주 현 광주시당 위원장과, 전남도당에 출마표를 던졌던 국창근 현 전남도당 공동위원장은 최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이에 따라 내달 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김 의원과 주 의원을 각각 지역위원장으로 추대할 방침이다.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5시 광주 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당은 오후 2시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각각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강진군의회의장 이삼현씨 영암군의회의장 유호진씨

강진군의회는 지난 27일 임시회를 열고 하반기 의장에 이삼현(56) 의원을 선출했다. 신임 의장은 1차 투표에서 김용호 의원, 김영수 의원과 경합을 벌여 4표를 얻은 뒤 2차 투표에서 전체 8명 의원중 5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김용호(50) 의원이 뽑혔다. 영암군의회도 이날 임시회에서 유호진(50) 의원을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의장은 1차 투표에서 강한원 의원과 맞붙어 전체 8명 의원(1명



〈이삼현 의장〉 〈유호진 의장〉

불참) 중 5표를 얻어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김점중(61) 의원이 뽑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민국의 지갑을 든든히 지키고 키우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금융파트너! SC스탠다드 상호저축은행이 옵니다. 대한민국에 자축은행에도 세계적인 금융전략과 든든한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150여 년 동안 세계 100여 개국의 수백만 고객과 함께 해온 SC그룹의 7만여 금융 전문가들이, 이제 대한민국 금융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든든하게, 풍요롭게 SC그룹의 글로벌 금융노하우가 당신의 것입니다. SC스탠다드 상호저축은행 탄생기념! Your Special Cash 케팅카드를... Standard Chartered SC스탠다드 상호저축은행